함께

가을 2013

· 특집 ·

책 속에 글이 있고,
글 속에 기쁨이 있다

대전중부교회

Contents

COVER STORY

기을하면 떠오르는 말들
천고마비, 한가위, 단풍, 외로움...
그리고 책 읽기
책 읽기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언제 책을 읽었지?
도대체 무엇을 읽어야 하지?
우리 동네에 서점은 어디 있나?
왜 뒷장을 읽다 보면
앞장이 생각나지 않지?
의문 가운데 하는 아름다운 다짐
그래도 끝까지 읽으리라...이 한 권은
온 가족이 책 읽는 즐거움에 빠져 보세요.
빠질 수록 행복한 책 읽기^^

표지 캘리그라피 윤지훈(늘푸른청년회)

2013 가을 Autumn

- **목양실 러브레터** 4
- **시가 있는 풍경** 6
- **특집 〈책 속에 글이 있고, 글 속에 기쁨이 있다〉**
  - 책, 내 삶의 동반자 10
  - 아이가 행복해 지는 선물, 책 읽기 16
  - 책 읽기로 가는 책 읽기 20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새 가족부 22
  - 지금 선교지에서는 26
  - 늘푸른청년회 리더모임 30
  - 어린이 경배와 찬양단 34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우리 동네 빵 가게 **38**
공동체 텃밭 '하늘 농장' **42**
포토 에세이 **46**
칭찬 릴레이 **48**

■ **중부 그루터기**

나의 삶 나의 신앙 **54**
사모의 글 **58**
이런 일 저런 일 **60**
내 솜씨 우리 가족 **63**

함께11호_2013 가을

발행일 | 2013년 10월 30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인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신신혜, 차문현, 박현정
디자인 | 박나래
캘리그라피(표지) | 윤지훈
발행부서 | 문서홍보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생각이 바뀌면 희망이 보인다

글 · 조상용 담임목사

대개 사람은, '하루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창1:5, 8, 13, 19, 23, 31).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줍니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인생은 어떤 날도 기쁜 날이 없습니다. 밤은 어둠과 혼돈, 저주와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인생은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아침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요, 희망적이요, 진취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입니다(창1:10, 12, 17, 21, 25, 31).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인간을 더욱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롬8: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교나 유교, 토속종교의 특징은 '운명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점을 봅니다. 그들은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삽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는 농부를 '자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형편이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시126:5-6). 밤에 잠을 잘 때,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밤이 아니라 아침으로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침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생각을 바꾸어서, 칠흑 같이 어두운 밤을 찬란한 영광의 아침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가을

김용택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
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랫녘 온 들녘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내 가슴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해 지는 풀섶에서 우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 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김용택 시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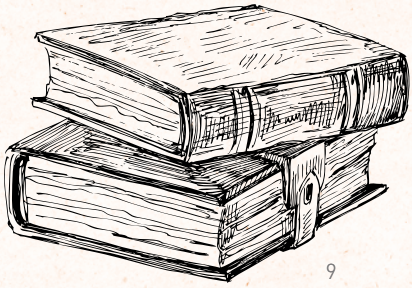
1982년 등단. '섬진강', '맑은 날', '그 여자네 집', '시가 내게로 왔다', '콩, 너는 죽었다' 등의 시집을 펴냈고 김수영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을 받았다.

이 그림은 늘푸른청년회 청년들이
삼도봉중부교회에 벽화로 그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단풍 아래에서 책 읽는 소녀,
무엇이 소녀로 하여금 독서삼매에
빠지게 했을까요?

이제는
책 읽을 시간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
그러나 대학가에는 서점을 찾기 어렵고 술집과 노래방이 가득한 시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을 읽던 시절은 추억이 되었고
이제는 스마트 폰 보느라 거지도 동냥하기 힘든 시대
여성들의 책 읽기는 점점 불이 붙고 지성을 갖추어 가는 반면
남성들은 골프와 등산으로 다리 힘만 좋아지는 시대
성경을 필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읽고 외우고 있지만
다른 책의 존재에는 무관심한 시대

이제 책 읽은 시간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서의 계절이니 한 권 읽어 볼까요?" 인심 쓰듯 읽는 시대.
그 나마 자기계발서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밑천이 있어야 합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은 100가지의 깊은 경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은 100명의 저자와 속 깊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책 읽기를 위한 작은 텃밭을 마련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행복

글 · 김주원 원로목사

이 글은 원로목사님의 책 읽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탁하였으나, 원로목사님께서 영어 성경 암송에 대한 글을 제안하셔서 싣습니다. 암송도 책 읽기의 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편집자)

말씀 암송에 관한 원고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감사하게도 조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온 교우들에게 광고까지 해 주신 대로 좋으신 하나님은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었다. 영어로 성경을 외우면 우리 말 성경은 자연히 따라 와 주어서 유익한 것 같다. 지금은 초보 단계이니까 '아가서'와 '산상수훈'을 암송하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계속 하려고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암송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고 싶다.

첫째, 암송은 말씀을 간직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

말씀을 외우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 돌비에 새겨 놓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소가 먹은 것을 새김질하는 것처럼 반복하여 되새기고 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산책을 할 때도 마음에 담아 놓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노라면 점점 강한 확신 속에 전율하게 된다.

둘째, 암송은 말씀을 깨닫는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

교양을 위해 말씀을 외워서도 안 된다. 자랑하기 위해서는 더욱 안 된다. 하나님의 마

음을 알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심비(心碑)에 새겨진 말씀을 꺼내어 입에서 되새김질 하노라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더 확실히 깨달아서 영혼의 노래 속으로 들어 가는 느낌이다. '아가서'는 'Song of Songs'(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이다.

셋째, 암송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행복을 준다.

저는 본래 운동을 좋아해서 은퇴 후에 골프를 배우느라고 애를 써 보았다. 매일 풀밭에 있는 공을 때리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었다. 그런데 영어성경 '아가서'를 암송하면서 전혀 골프할 마음이 없어졌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도 말씀 암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마치 배들이 캄캄한 바다를 항해할 때 등대를 보면서 무사히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

넷째, 암송은 도전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행복이다.

대전신학교 및 몇몇 중국 심양에 있는 공동체 교회에 가서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말로 옮겨 보았다. 그들 중에는 머리 하얀 노인이 암송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어 성경을 암송할 마음을 주신 것은 교우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4살부터 하루 3시간 씩 토라(모세오경)을 외우고, 13살이 되면 토라를 암송해야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두 암송한다고 한다. 전 세계 인구의 0.3%인 유대인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 암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대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수1:8)"라고 했다. 여호수아가 수백만 명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힘은 입에서 떠나지 아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말씀을 암송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학습독서공동체 백북스를 통해 나누는 삶의 기쁨

글 · 박성일(박성일 한의원장, 사단법인 백북스 대표)

학습독서공동체 백북스는 10년 넘게 매달 두 권의 책을 읽어온 대전에서 시작된 독서모임이다. 1년에 24권씩 읽었고 지금은 268번째 책 김운하 작가의 〈카프카의 서재〉를 읽고 있다. 9월 둘째 화요일저녁에 유성도서관에서 저자가 직접 강연을 한다. 이렇게 백북스는 12년째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백 권 독서모임으로 작게 시작되어 현재는 서울, 인천 등에 지역모임이 있고, 지난해 6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하여 독서운동. 지식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

작게는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텐북스 10books 소그룹을 만들어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교제하는 모임을 5년째 하고 있다. 경건도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읽어 볼만한 예술, 문학, 철학, 사회, 종교 관련 책들을 읽고 토론하기도 한다. 교회의 장년, 중년 리더들이라면 꼭 하고 싶어 하는 소그룹 모임이 되었다.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연구원 백북스를 만들어 책을 읽고 저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매월 한 번씩 한다. 한 권의 책을 통하여 강연과 토론을 하며 정신적 공통분모를 갖게 되는 것이 연구원 전체의 융합과 단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

백북스는 학습독서와 균형독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흥미나 여가 위주의 독서를 넘어 자신의 전공이 아닌 관심분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달려들어 하는 독서이다. 책 읽기를 넘어 학습하는 마음으로 하는 독서.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읽기를 학습과 변화를 위하여 읽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이 백북스의 독서철학이다.

대구에서 교수를 하다 대전대학교수로 옮기면서 집 가까운 교회가 중부교회였다.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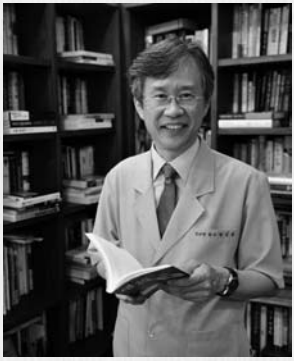
높은 언덕에 넓게 자리 잡은 매우 소박하고 경건한 교회였다. 김주원 목사님의 순수하고 충실하신 말씀이 젊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당시에도 비슷한 또래의 형제들이 모여 책 읽기를 좋아했다. 함께 읽고 토론하며 도전을 받았던 책이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쓴 〈제자 입니까〉이다. 아직도 기억이 새롭다.

한 권의 책만큼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드물다.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함께 책 읽기 하는 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동체운동이다.

백북스 운영을 잠시 소개하면 강연 때 참가비는 만원이다. 그 돈을 모아 강연자에게 30만원의 강연료를 드린다. 누군가 강연장 입구에 음료수와 간식들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놓는다. 강연 후에는 초청한 저자와 설렁탕집에서 늦은 저녁들을 먹으며 밤늦도록 토론도 벌인다. 뒤풀이 경비도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부담을 해준다. 한 달에 한두 번 1-2만원을 내고 얻어가는 그들의 감동은 제법 크다. 며칠 전 어느 회원이 보낸 문자를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어제 저녁 백북스 강연 다 못 듣고 질의응답 시간과 강연 뒤풀이에만 잠깐 참여했는데도 저에겐 큰 힐링이 되네요. 백북스가 회원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반가운 미소를 지어주시는 마음의 고향의 착한 바보형?. 오늘도 행복하세요"

40대 후반으로 대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간 김 차장이 보낸 아침 문자이다.



박성일(박성일 한의원 원장, 사단법인 백북스 대표)은 오래 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분으로 바쁜 한의원 일정 중에도 독서운동에 앞장서시고 계신다. 백북스는 말로 만의 독서운동이 아닌, 실천적이고 전향적인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다. www.100books.kr 을 방문하면 회원들의 활동과 독서의 방향, 지금까지 읽었던 도서목록과 서평, 후기 등을 볼 수 있다. 매주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대전에서 열리는 백북스에 참석해서 독서를 통한 삶의 변화에 새로운 기쁨을 나와 가족, 이웃이 함께 해 보기를 권면 드린다.

좌충우돌 책 읽기

글 · 김용수 기자

특별히 한 분야를 섭렵해야 하는 학자도 아니고, 한 분야를 파고 들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닌 나의 책 읽기를 특징 짓는다면 '좌충우돌' 책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책 읽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이 있으리라 보는데, 한 작가의 것을 집중적으로 읽는 방법, 특정한 분야에 집중하는 방법, 한 시대에 펼쳐진 다양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방법 등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을 것이다.

나는 보통 세 권에서 다섯 권 정도를 펼쳐 놓고 읽는다. 장르도 모두 다르다. 문학, 역사, 철학, 가벼운 산책과 같은 세상 풍물 이야기, 종교, 경영 등등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장르를 넘나 들며 읽는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물장수 난전 펼치듯 펼쳐 놓고 읽는다.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책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에 몰두하여 다른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선 탓도 있다.

한때는 한 작가의 것을 집중해서 읽는 스타일이었다. 한 작가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전체를 조망한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무슨 편집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그리고 학문적 성과를 내야 하는 논문을 쓸 것도 아닌 것이어서 그런 스타일과 결별했다.

이러한 '좌충우돌'은 읽던 책을 슬며시 잃어 버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책들과 동거하게 한다. 한 참을 잊고 있다 불현듯 찾아 손에 들 때면 책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그래서 그때는 끝까지 읽어 주는 관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러한 스타일의 책 읽기는 그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고, 기대와 설렘도 있다. 마치 한 친구에게 빠지지 않고 여러 친구와 골고루 우정을 나누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단편으로 엮어진 책은 '좌충우돌'형으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소설이나 글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평전, 역사 등은 자칫 흐름을 놓쳐서 앞 뒤를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떤 책은 한 권 중에서 일부만 읽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소설 등은 끝까지 읽지 않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책은 깊이도 중요하지만, 폭 넓게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폭 넓은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통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과학자도 미술사를 읽어야 하고, 첼리스트도 철학을 읽어야 한다. 실제로 장한나는 하버드에서 철학을 공부한다. 육상선수도 장자를 읽을 때, 자신의 존재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요즘 대학교육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폭넓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능력을 죽이고 있다. 많은 대학이 직업훈련원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르고, 오로지 직업을 갖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다. 전문화 된다는 것, 분업화 되어서 일한다는 것은 우주만큼 큰 자신을 낱알처럼 쪼개어 살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책 읽기라고 생각한다.

'좌충우돌' 책 읽기가 되었든,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드는 책 읽기가 되었든 책 읽기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어떤 달콤한 유혹도 걷어 찰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지난 겨울에 읽다 만 책이 뭐가 있는지 찾아 봐야 하겠다.

아이가 행복해지는 선물 책읽기

글 · 박진화 집사(독서지도사)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는 아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 말은 그만큼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고 책을 잘 읽는 아이였다가도 지금은 손을 놓고 다른 재미에 빠져 사는 아이가 많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단언컨대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최근 한 지역아동센터 독서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논술 수업을 원해서 수업을 하는 아이들과 도서관 독서교실에서만 아이들을 만나던 내게 이 지역아동센터는 신세계나 마찬가지였다.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는 아이들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는 아이들이 없었으며 서로 학년이 다른 아이들 여섯 명이 있는 강의실이 마치 60명은 왔다 갔다 하는 난장판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곳에서 그림책 하나를 펴들고 읽기 시작하자, 아이들의 시선이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책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독서 습관

그렇다면 왜 부모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또 아이들은 점점 책은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며 멀리 할까?

신탄진도서관 독서교실 아이들과 함께

그것은 독서 습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습관'이란, '여러 번 거듭하여 저절로 마음이나 몸에 굳어 버린 성질이나 짓'으로, 독서 습관이란 말 그대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독서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여 독서가 몸과 마음에 자연스레 배어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독서 습관을 아이들 스스로 잡아 가길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만나보면, 초등 중학년(3학년)이면 벌써 독서습관이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를 놓치고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채 고학년이 된다면, 고작해야 책이라면 만화책이나 뒤적거리는 아이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책보다 재미있고 짜릿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남았다. 초등 고학

독후활동 1

철원 독서 기행

년부터는 독서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 상태이고 학습적인 것과 연관된 책을 전략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제쳐두기로 하고, 영 • 유아 및 초등 중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내 아이에게 평생의 좋은 친구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절대 어려운 책이나 연령을 뛰어 넘지 않으며 아이들 수준에 맞는 좋은 책들을 골라 읽고 또 읽기를 권하고 싶다.

독서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의 독서 습관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수업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는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부모 자신도 책보다 TV나 인터넷에 매여 있으며 심지어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TV리모컨을 눌러대며 방해하고, 아이들의 부모는 정작 책을 읽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 보니 큰일났다며 책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급한 마음에 논술학원에 보낸다. 그러니 이렇게 독서습관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아이를 만나면 아이 마음도, 교사도 참 힘들다.

20년 전부터 봇물처럼 쏟아진 보석 같은 아이들 그림책이 정말로 많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책 목록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전 영역 골고루,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까지 부모 중 누구라도 좋지만, 특히 아빠가 읽어주면 더 좋다, 읽어주기를 할

독후활동 2

때 재미를 위해 동화구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잔잔한 아빠와 엄마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가끔은 책과 함께 나오는 시디(CD)나 테이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부모나 아이가 놀이처럼 책읽기를 즐기며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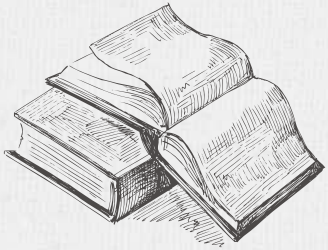
다양한 독후 활동 – 책읽기의 즐거움

책을 충분히 읽고 나면 아이에게 읽은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질문만 하려 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책 내용과 연관하여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등의 대화하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요리하기, 놀이하기, 직접 가보기 등의 활동을 해본다면 더욱 좋겠다. 이것이 독서지도에서 하는 독후활동인데 거창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아이랑 얼마든지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이가 책을 혼자 읽기 시작하고 고학년이 되어도 읽은 책에 대해 부모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부모와 아이의 지속적이고 즐거운 책읽기가 바탕이 된다면, 혹시 중간에 만화책에 빠지더라도 줄글 책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처음 선생님이라고 한다. 논술학원을 보내서 사교육을 하나 늘릴 생각을 접고 내 아이에게 평생의 버릇으로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소박하고 건강한 생각으로 조금씩 노력해 본다면 좋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의 이런 세상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책 속에 길이 있다. 아이와 그 길에 같이 서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함께 상상하며 행복하게 준비해 가는 건 어떨까!

‘리딩으로 리드하라’

글 · 편집부



“무엇을 읽어야 하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무엇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름답다. 왜? 이제라도 읽을 것을 고민하니까! 그런데 질문을 “왜 읽어야 하지?”로 바꾸고 나면 무엇을 읽을 지가 조금은 보일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세상에 태어나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될 수 없다.(율곡 이이)”

‘리딩으로 리드하라’(이지성 저. 문학동네)를 펴면 위의 두 문장이 한 쪽에 한 문장 씩, 두 쪽이나 차지하고 있다. 출판사의 쪽수 늘리기도 이 정도면 대단한데, 여백을 보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뜻으로 알면 보약이 될 터이다. 요즘 책을 선물하거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추천하는 책이 바로 “왜 읽어야 하지?”를 알려주는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이다.
약 300쪽의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과 추천도서, 인문고전 독서가들을 설명한 부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선 부모부터 읽어야 한다. 가능한 단숨에 읽어야 하는데, 이유는

느낌이 식기 전에 자녀에게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동기부여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굳이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책 읽기에 빠져 들어 1년이 채 안돼서 집안에 작은 서재가 생길 터이니 말이다.

저자는 말한다. 인문고전을 읽으라고,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인문 고전을 읽으라고,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대학교 대출도서 1위가 판타지 소설이고 3류 대학의 전형이었던 시카고대학을 노벨상 왕국으로 만든 것은 모든 학생에게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훈련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덧붙인다면 부자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읽기 보다는 삶에 대한 깨달음과 기쁨을 얻기 위해 읽어야 한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셨다. 아침에 도를 깨달아 아침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도를 기쁨으로 누리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말한다. 책을 10년은 읽어야 감이 잡힌다고, 10년은 읽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 10년은 요즘 말하는 '10만 시간의 법칙'이다. 어떤 일이든지 10만 시간을 투자해야 제대로 설 수 있다는 '10만 시간의 법칙'. 비틀즈가 그랬고, 스티브잡스가 그랬다. 이 책의 저자 '이지성'도 그랬다. 그 말인 즉,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다. 책을 읽다 보면 책이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을 안내할 것이다. 모든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읽은 책으로 소통하고, 미래를 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카프카의 도끼질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변신 서문 중)

"새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밖에 없어서

글 · 박현정 기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사역자 분들 뒤로 옹기종기 서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볼 수 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새가족부 부원들이시다. 수줍은 얼굴만 보면 도대체 어디서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지 궁금하기에 주일에 직접 새가족부를 찾아가 보았다. 어떤 분들이 새가족부를 섬기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새가족부 김경순 부장님, 김영숙 회계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한다.

Q. 새가족부는 어떤 부서인가요?

A. 새가족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는 부서에요.

Q. 새가족부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A. 새가족부는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교인으로 등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돕고있어요.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을 새가족석으로 안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면 4주간의 새가족 성경공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죠. 성경공부가 끝나면 새가족부 부원들과 새가족분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에도 꼭 오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바나바 부서에 잘 연결해 드리는 것도 우리의 임무구요. 또 주일 오후에 4주간의 성경공부를 마친 새가족분들이 공부하시는 확신반이 잘 운영되도록 섬기는 것도 새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 중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상반기 환영회를 열었었는데요, 교역자분들, 장로님들, 또 교인들이 모여서 새가족분들과 인사하고 장기자랑도 했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식사 준비 등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새가족부의 이름을 걸고 모두가 노력해서 잘 치러낸 것 같아요.

Q.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역이 있네요. 사실 모르는 사람을 섬긴다는 일이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권사님께서는 부장 직분까지 맡으시면서 새가족부를 하기로 결

정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A. 부장님 : 사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상황이나 시간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자격이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시고 여러모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덮고 시작하게 됐어요.

Q. 집사님은 어떻게 새가족부 섬김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A. 회계님 : 사실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서 시작한건 아니였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새가족부를 섬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듣고 봉사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새가족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오히려 제 신앙심도 깊어지더라구요. 보잘 것 없는 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답니다.

Q. 새가족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우선 인원부터 가족 같아요. 저희가 지금 7명이잖아요? 오순도순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요. 모든 부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을 너무 열심히 해줘서 다행이에요.

Q.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분명히 사역 중에 어렵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렵나요?

A. 우선 저희가 새가족분들을 위해 꽃을 매주 준비하는데요.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그 꽃이 다 없어지면 좋은데 꽃을 받아가실 분이 없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려운 점은 교회에 오시자마자 교회 정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쁜 마음을 먹은 이단이 우리 교회에 접근해 올 까봐 염려가 되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한 가지 성도분들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식사하실 때 새가족석을 꼭 좀 비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새가족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좌석인데 가끔 모르시고 앉아 계시면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꼭 부탁드릴게요.

Q. 새가족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분들이 계실거에요. 새가족부 섬김을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A. 새가족부에 들어오시면 한 영혼을 섬김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됨과 더불어 나 자신도 참 귀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함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과 새가족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시지만 눈빛에서는 새가족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데에서 가장 먼저 그 일의 성패가 갈린다고 하지 않던가? 새가족부가 작은 사역에서부터 큰 사역까지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있는 것은 부원들이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이 넘치는 새가족부에 새로운 손길들이 늘어나서 그 사랑이 두 배, 세 배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날까지!

글 · 순돈호, 한수정 선교사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는 중유럽에 속한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약 540만명의 소국으로, 한 때 체코와 연방국가를 형성 했다가 1993년 1월을 기해 체코와 평화적 분리 후 현재는 EU에 속하여 있습니다. 85%의 슬라브족(슬로바키아인)과 약 10%의 헝가리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약 66%, 그리스 가톨릭교 포함), 루터교회(약 6%), 헝가리 개혁교회(약2%), 복음주의 개신교회들(1%미만) 등, 대부분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슬로바키아 교회 상황을 분석 해보면, 가톨릭과 루터교회, 개혁교회 등의 성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어가고 있으며, 복음주의 교회들은 현상 유지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집단이 있습니다. 몰몬교와 바하이교입니다.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슬로바키아인들도 급격한 증가 추세입니다. 2012년 현재, 약 13-15%가 무신론자라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슬로바키아도 서유럽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는 2009년 10월에 이곳 슬로바키아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어떻게 이 나라와 백성들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게 고민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제1기 사역은 구체적인 섬김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여깁니다. 언어 준비를 했습니다. 또 성서신학자로서 마테이 벨 대학교의 신학과에서 신약 주석에 대한 강의를 하며 차세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현지 교단 지도자들의 명에 의해, 니트라에 정착하여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멘토링하는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주변의 무목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도 병행해 왔습니다. 두 사람이 니트라 합창단에 합류하여 다양한 계층의 중산층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삶과 문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평신도 지도자들 소수를 발굴하여 이 분들과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만나 말씀을 통해 삶과 사역을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세워나갔습니다. 특히 주님과 그 나라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얀코 형제(후에 장로가 됨)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을 섬기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 형제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저와 아내는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왔습니다. 밀란과 블랑카 장로 부부(올해 가장 큰 교회의 장로가 됨) 또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족들은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 묵상을 실천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세워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인 물리학도 요세프 피로스코 박사를 만나 2년 반 동안 함께 등산하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던 그가, 2년만에 스스로 종교적인 질문을 해 왔고, 이를 계기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일은 가장 잊지 못할 멋진 "성령님의 사역"에의 경험입니다. 현지 언어가 여전히 부족했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되자, 놀라울 정도로 제가 복음을 현지어로 잘 설명하는 것을 보았었지요. 나아가 그가 마음을 열고 그 복음에 반응을 했고,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 할 때, 주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찬양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한수정 선교사는 여성들을 위한 말씀 묵상을 지도 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기에 니트라 교회 뿐 아니라, 교회 연합모임, 개교회 등을 찬양과 간증으로 섬겨왔습니다. 특히 기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기도편지를 통해 소개 드렸던 쥬잔나의 아이 출생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블라도와 마리아 부부의 딸의 가족에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일은 현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 왔다고 여겨집니다.
한 선교사는 두 개의 언어 캠프를 통해 현지 슬로바키아인들을 섬기어 왔습니다. 첫번째로는, 프랑스의 한 메노나이트 교회와 협력을 통해 두 차례의 프랑스어 캠프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슬로바키아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젊은이들은 니트라의 공동체에 관계되어 지금도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번째 캠프를 통해서는 훈련생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중년의 블라도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변화되어 큰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어 강좌와 캠프를 통해 섬겨왔습니다. 지난 2년 이상 하나님은 저와 아내에게 아주 좋은 젊은이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중 특히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몇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들이 매주 우리 집에 와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저희들이

가르친 젊은이들이 한국대사관 주최의 제 1회, 제 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세종대왕상)을 받는 축복을 주셨지요. 그 후에도 아내는 계속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연구소(순선교사)와 문화와 음악연구소(한선교사)를 통해 현지인들(특히 지도자 교육에 초점을 둔)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적 종교성을 가진 현지인들을 생명력 있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가르침, 훈련의 기능을 이곳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 묵상(혹은 큐티)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뿐 아니라, 충성된 말씀 사역자들을 발굴하여 집중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 세워 자민족을 가르치고 세워나갈 자들을 양육해 갈 것입니다.

한선교사는 교회 음악과 예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며, 한국어 사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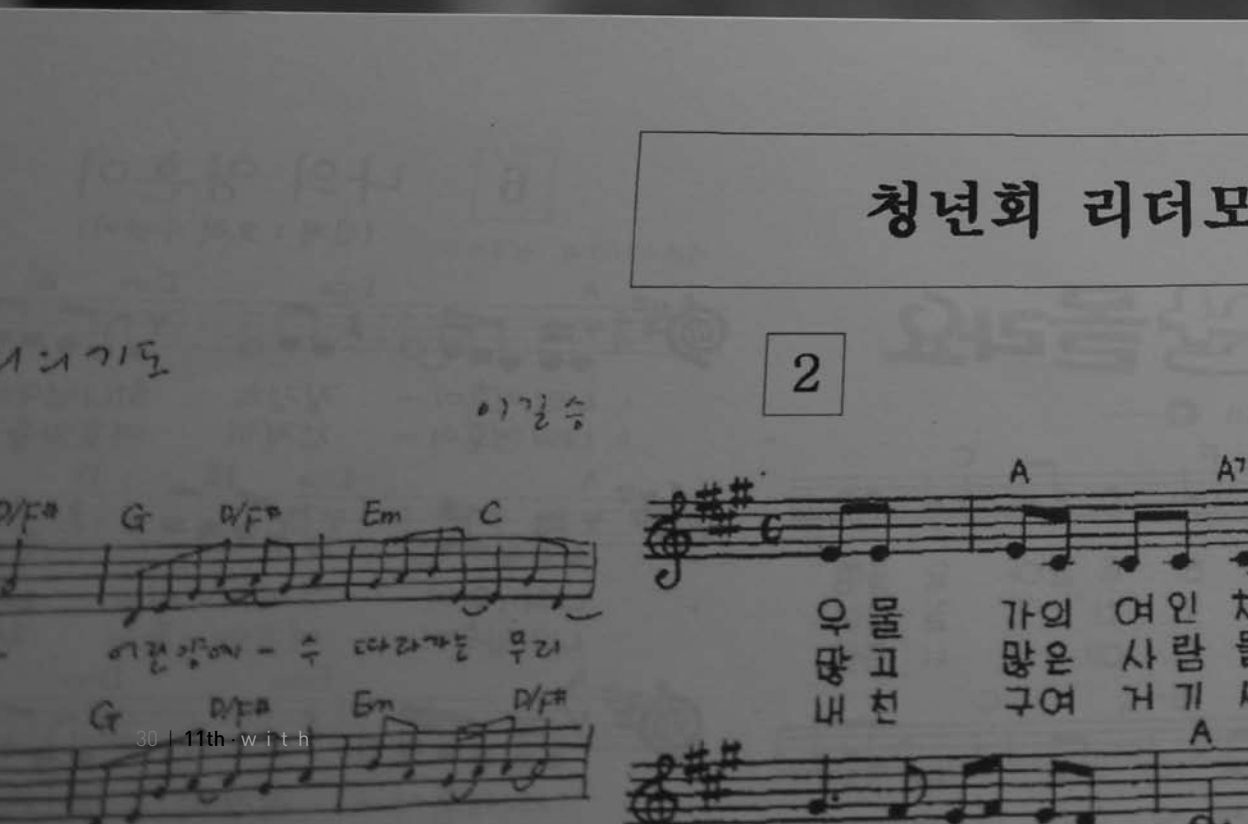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날을 보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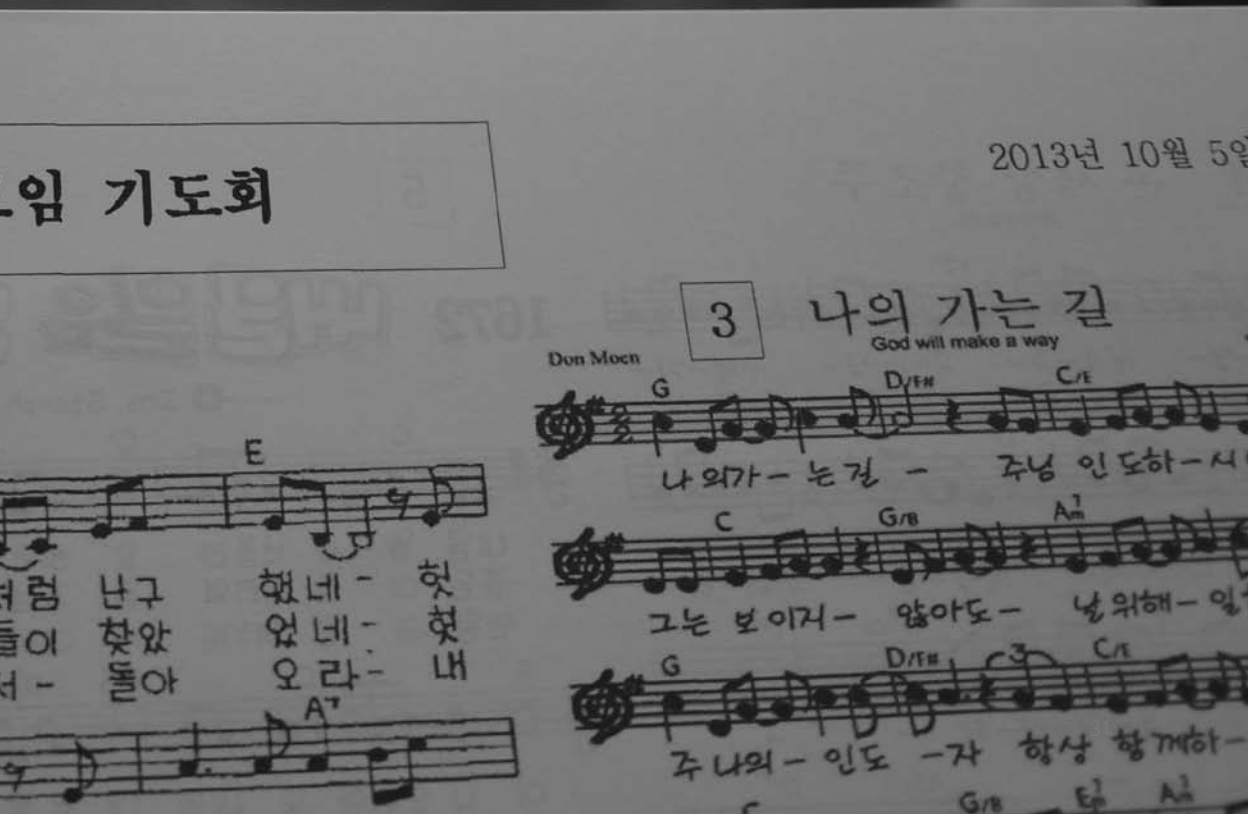
1. 두 사람의 연구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활집과 연구소 방들, 작은 강의실과 도서관이 있을 수 있는 복합 공간이 필요합니다.
2. 선교지에서의 안식년 사역, 즉 언어 집중 사역과 2기 사역 자료들 연구,집필 과정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더블린에 따로 떨어져 자취하고 있는 세 남매들(큰 딸 영화와 둘째 딸 영은(대학생), 막내 아들 영채(대학 진학 준비 중인 고 3)의 필요(학비 등)가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4. 순선교사의 건강이 최근에 무척 좋지 않은데,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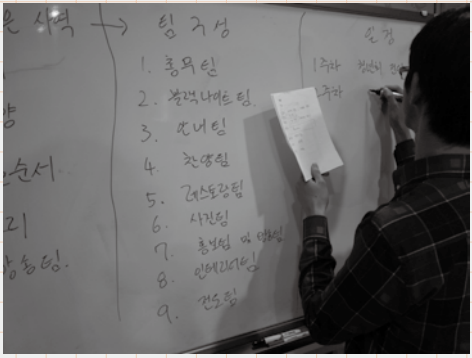
세상의 달콤함을 포기하고 참된 리더가 되기를 고민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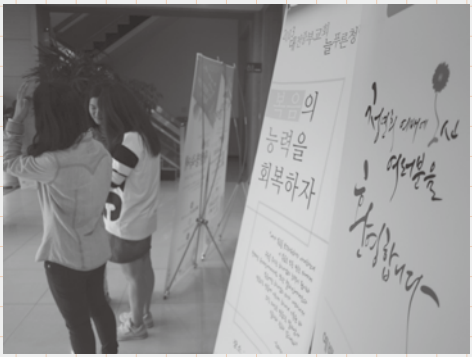
글 · 차문현 기자



세상에는 다양한 맛이 있지만, 우리는 달콤함에 연약할 때가 많다.
'달콤함'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무료한 낮에 취하는 달콤한 낮잠, 밤중에 식욕중추를 자극하는 야식의 달콤한 유혹 , 주머니를 열까말까 고민하게 하는 달콤한 세일 등 달콤한 유혹이 많은 세상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토요일은 참 달콤한 날이다. 낮잠, 영화, 쇼핑, 등산, TV, 여행들 사이에서 매주 매주 행복한 고민을 한다. 초등학생부터 장년까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토요일은 참 즐거운 날이다. 더욱이 크리스찬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토요일이 더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함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예배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하는가.' 그 답을 확인시켜 준 '청년회 리더모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누가, 언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저녁 6시 반이면 교회로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늘푸른청년회에서 임원, 목장지기, 엘더,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이 '리더모임'을 하기 위해 모였다. 청년회 리더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라고 하지만, 단지 의무감으로 매주 매주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발견하기 힘든 남다른 매력이 이곳에 있는 건 아닐까.

무엇을 하나

어느 가을날 리더모임에 방문했을 때, 이들은 일찍부터 모여 교회 주보에 '새생명축제' 속지를 끼워넣는 작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모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반가움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도, 능숙한 손놀림으로 일을 해나간다.

리더모임에서는 신앙서적을 한 권씩 선정해서 함께 나눈다. 지금은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 중이다. 주중에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삶에 적용한 이야기, 혹은 느꼈던 점들이나 들었던 생각들을 소그룹으로 모여 나눈다. 이 시간에 읽었던 책들 중에 더 많은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책은 목장에서 함께 읽기도 한다.

청년회는 차기 리더십을 세우는 공천이나, 국내 단기선교나, 어떤 사역들을 준비함에 있어 소수의 몇명에게만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더십들이 함께 고민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일부가 토요 리더모임 시간에 이루어진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책나눔 후에는 함께 찬양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지금 이 시간의 모임을 위해, 준비해야 될 사역들, 섬기고 있는 청년회와 교회,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리고 내일의 예배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설교 말씀을 미리 듣고 배운다.

이들은 '리더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었다.

예배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리더모임을 함께 하면서 확신한 것은, 예배는 예배로서 준비될 때, 예배로서 받으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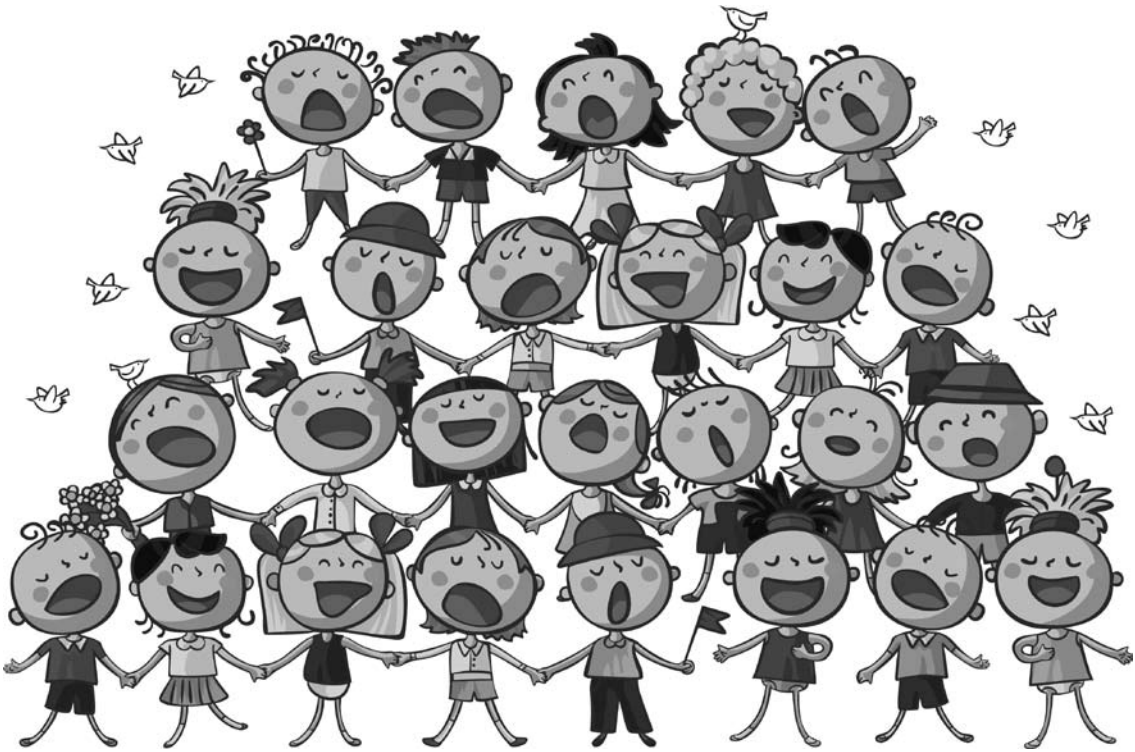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순간의 만족들을 선물하겠지만, 달콤함에만 취해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무척 둔해지고 무감각해질 것이다. 우리의 감각이 마비된다면, 정말 소중한 것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며, 이들과 청년회에 함께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글 · 이정아 전도사



샬롬~~ 어린이 경배와 찬양단 지도 교역자 이정아 전도사입니다.
저희 경배와 찬양단은 유치부 6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 40명 가량의 아이들과 8명 가량의 선생님께서 찬양과 워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분들께서 경찬 친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3개월에 한 번씩 오후예배 때 특송을 하고 있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도 경찬 친구들이 특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단의 구성원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단에도 교육목표가 있어요. 교육목표는 첫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대전 중부 어린이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찬양훈련을 통해 각 부서에서 영적예배 부흥과 부서를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요. 넷째, 아이들을 통한 가정구원의 회복과 중부교회 작은 일원으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경배와 찬양단은 모두 주일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각 부서의 찬양단으로 봉사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의 찬양단과 경배와 찬양단에서 동시에 훈련 받으며 각 부서의 찬양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답니다.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다윗처럼 우리 경찬 친구들도 매 순간 목소리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의외로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찬양지도는 한일민 선생님, 율동과 워쉽은 각 파트를 나누어 송이순, 권민숙, 조경희 선생님께서 회계로 고은주 선생님, 총무 신신혜 선생님, 그리고 단장으로 최미자 권사님께서 봉사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마다 중부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느낍니다. 황금 같은 주일에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가운데도 예배를 우선 순위로 드리고, 잊지 않고 경배와 찬양단 연습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아직 어리고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긴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단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성도분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친환경 자연발효 수제빵 전문점

에코 브레드 하우스

글 · 신신혜 기자

동네 빵집으로 1995년 비래동에 자리를 잡은 김대승 대표는 인근 주민들을 고객으로 운영해 왔다. 어느 날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이 하나 둘 들어서고 고객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기존의 매장과 차별화 된 형태를 조사하여 「자연발효 빵」을 개발하였다. 자연발효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고,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넣어 보다 한국적인 빵, 한국 입맛에 맞는 빵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어 친환경 자연발효 빵을 만든다는 의미로 상호를 「에코 브레드 하우스」로 바꿨다고 한다. 그 결과 발효종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건강빵을 개발하여 동네 빵집으로만이 아닌 타 지역의 손님까지 방문하고 있다. 또한, 노력의 결실로 종교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도 주문이 들어 오고 있다.

인근 거주민이 대부분이었던 고객이 이제는 대전 여러 곳에서도 찾아와 단골 고객의 수도 늘어난 것이다.

“판매량이 적은 빵 제품이라도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겁니다” 김대승 대표의 생각은 단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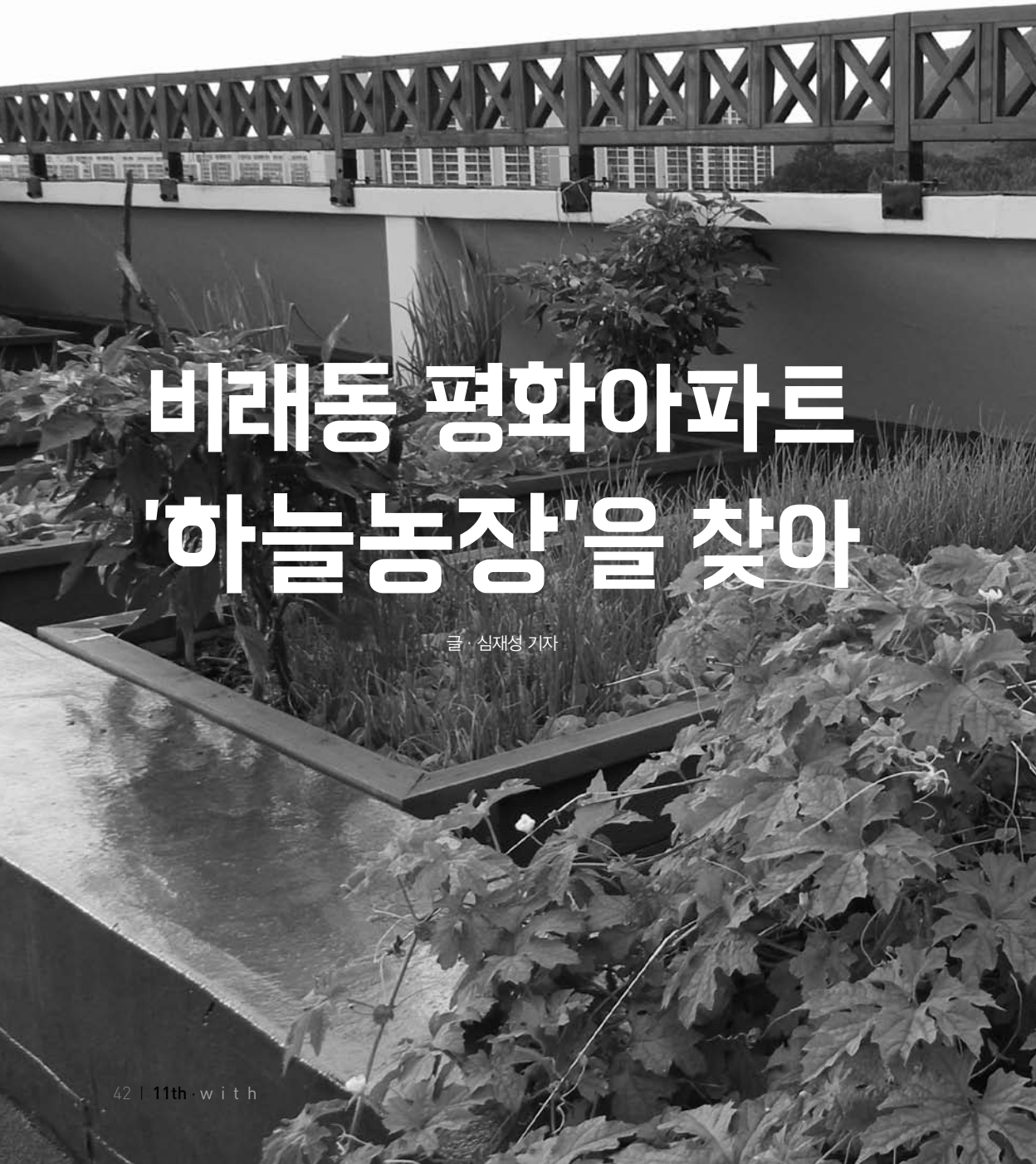
오랜 세월 비래동의 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한결 같이 새벽이면 두 손을 움직여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었을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 진다.

가을 찹쌀바게트&
호박빵 추천해 주는
레삐도르

교회 언덕길을 내려가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있다. 레삐도르 제과점이다. 15년 동안 그 자리 그 곳에서 변함없이 있었던 곳이다.
남편과 함께 강명순 집사가 운영하는 레삐도르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처음 가양동에 이사를 왔을 때 국은희 집사를 만나게 되어 교회에 등록까지 하면서 교인들이 주 고객이 되어 맛있는 빵집으로 소문이 났다. 이제는 가양동 뿐 아닌 비래동이며 다른 여러곳에서도 단골이 있을 정도다.
“15년 전 만 해도 동네에는 많은 빵집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한 대형 제과점이나 브랜드제과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과에 대한 열정 하나로 지금껏 견뎌왔습니다.”
이제 큰 아이 나이가 레삐도르 나이와 같은 세월이 되다 보니 일하는 장소가 아닌 애틋함이 더 묻어나는 장소가 되었다. 빵집을 운영하게 된 것은 몇 년전 밀가루 파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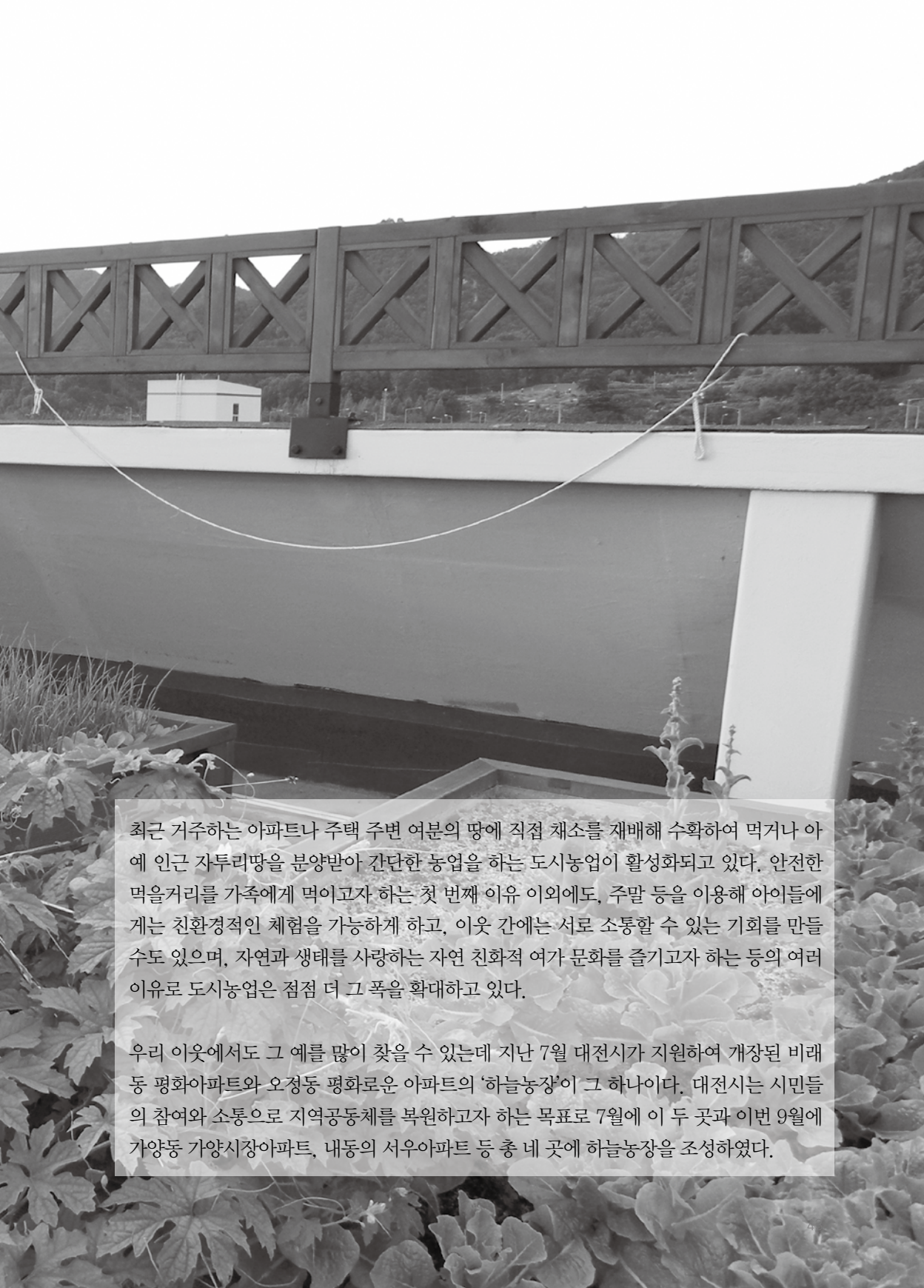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다 결심했다. 이 어려움을 아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보답하는게 더 나으리라는 생각으로 10년 전 그 가격 그대로 빵을 판매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했던 고객도 오게 되고, 싼 빵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가 또 한 번 빵을 먹어본 고객들은 한 번 발걸음이 두 번이 되고 이제는 단골이 된 고객들도 많다. 지금도 10년 전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득보다는 감사함으로 전해드리자 마음 먹으면서 일하고 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와 일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하는 강영숙 집사. 이렇게 레삐도르는 빵만을 판매하는 게 아닌 마음을 전해주는 곳이다. 가을에는 찹쌀바게트와 호박빵이 좋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비래동 평화아파트 '하늘농장'을 찾아

글 · 심재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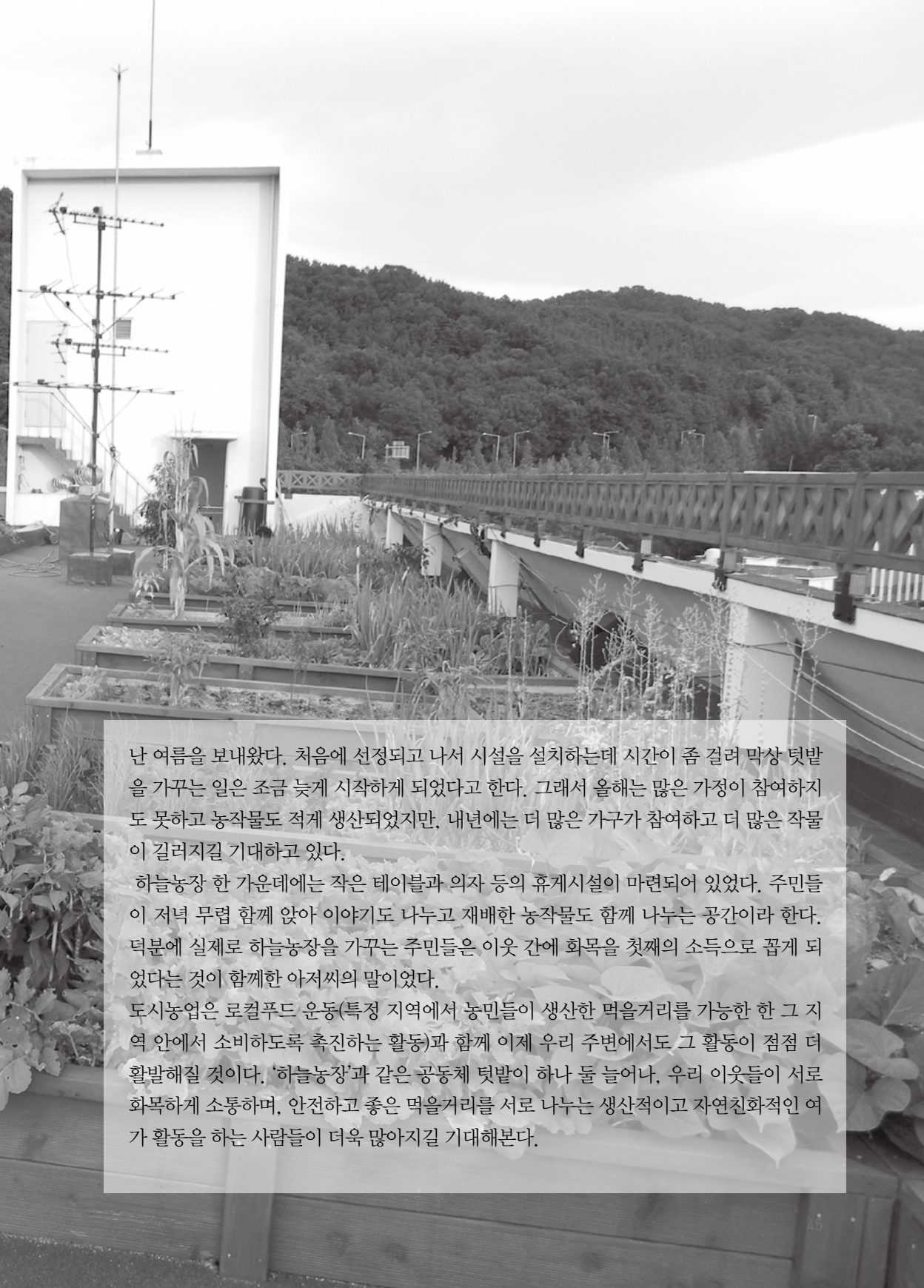


최근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 주변 여분의 땅에 직접 채소를 재배해 수확하여 먹거나 아예 인근 자투리땅을 분양받아 간단한 농업을 하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족에게 먹이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 이외에도, 주말 등을 이용해 아이들에게는 친환경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웃 간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며, 자연과 생태를 사랑하는 자연 친화적 여가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도시농업은 점점 더 그 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이웃에서도 그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지난 7월 대전시가 지원하여 개장된 비래동 평화아파트와 오정동 평화로운 아파트의 '하늘농장'이 그 하나이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목표로 7월에 이 두 곳과 이번 9월에 가양동 가양시장아파트, 내동의 서우아파트 등 총 네 곳에 하늘농장을 조성하였다.

하늘농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면서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냉·난방비 절감과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의 이점이 많아 대전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아파트별로 하늘농장에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300㎡규모에 방수 및 안전펜스, 관수시설, 빗물이용시설과 텃밭시설 등을 조성하고 휴게시설도 갖추게 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약 2㎡씩의 텃밭을 분양받아 상추와 고추 등 각종 채소를 직접 재배할 수 있게 했다.

네 곳의 하늘농장 중 하나인 비래동 평화아파트를 지난 9월 직접 방문해 보았다. 경비원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0층 옥상 위에는 가지런히 마련되어 있는 텃밭에 고추, 상추, 열무, 토마토 등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시에서 하늘농장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파트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했는데 마침 선정이 되었고, 현재 38가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텃밭을 분양받아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하며 지



난 여름을 보내왔다. 처음에 선정되고 나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막상 텃밭을 가꾸는 일은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가정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농작물도 적게 생산되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참여하고 더 많은 작물이 길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늘농장 한 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등의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저녁 무렵 함께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재배한 농작물도 함께 나누는 공간이라 한다. 덕분에 실제로 하늘농장을 가꾸는 주민들은 이웃 간에 화목을 첫째의 소득으로 꼽게 되었다는 것이 함께한 아저씨의 말이었다.

도시농업은 로컬푸드 운동(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과 함께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질 것이다. '하늘농장'과 같은 공동체 텃밭이 하나 둘 늘어나, 우리 이웃들이 서로 화목하게 소통하며,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서로 나누는 생산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

오랜 시간을 순명하며 살아나온 것
시류를 거슬러 정직하게 낡아진 것
낡아짐으로 꾸준히 새로워지는 것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

자기 시대의 풍상을 온몸에 새겨가며
옳은 길을 오래오래 걸어나가는 사람
숱한 시련과 고군분투을 통해
걷다가 쓰러져 새로운 꿈이 되는 사람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박노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서 발췌〉

칭찬릴레이 1

1인 다역에도 밝은 에너지 듬뿍

이은영 집사 첫 번째 칭찬릴레이 주자로 이은영 집사가 출발한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은영 집사는 연로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다. 한 가정의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으로 1인 다 역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만도 한데 집사님의 모습은 늘 씩씩하고 밝아서 오히려 함께 있는 우리가 에너지를 듬뿍 받고 있다.

“ 이은영 집사님은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주일이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분 입이다. 그럼에도 근무가 없는 주일이면 오전에는 남편(정봉진 집사)과 함께 예루살렘 성가대를 섬기고, 오후 예배에서는 주찬양단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처해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더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지요. 늘 자신과 이웃,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언제나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이은영 집사님, 파이팅입니다.”

칭찬릴레이 2

맑은 미소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매력

김정식 집사 두 번째 칭찬릴레이 주자로 이은영 집사가 김정식 집사에게 바톤을 넘겼다.

"김정식 집사님은 같은 교구도 아니고 연배도 다르다 보니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속내를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김정식 집사님을 뵐 때면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상냥한 목소리와 경쾌한 웃음소리는 듣는 나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 줍니다. 뭔가 우울하다가도 집사님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만나면 우울한 기분은 어느새 없어져 버립니다. 치유를 주는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정말 부럽습니다."

이은영 집사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때로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나뭇잎 구르는 것만 봐도 웃는다는 순수한 소녀의 감성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김정식 집사님과 마주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로 봉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음악학원(연세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순수한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니 집사님의 영혼도 아이들의 감성을 닮아 늘 밝고 순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칭찬릴레이 3

솔직함에 감추어진 순수함

김혜숙 성도 김정식 집사가 김혜숙 성도에게 공을 넘겼다.

김정식 집사님은 김혜숙 성도님의 솔직하고 순수함한 모습을 칭찬하였다.

김정식 집사와 김혜숙 성도는 같은 목장 식구여서 대화할 기회가 자주 있다.

"김혜숙 성도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너무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때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절대 뒤에서 딴소리를 하거나 누구를 헐뜯는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못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잘난 체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정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김혜숙 성도는 자신의 형편이나 생각을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아서 영적으로도 더욱 더 가까이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목장 가족이다. 김혜숙 성도를 통해서 자신 앞에서 나를 감추려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 지라고 도전을 받기도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무언의 조언을 받기도 한다.

"직장을 다니다보니 때로는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목장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김혜숙 성도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고, 맑고 순수한 바람처럼 제 영혼을 씻겨 주세요."

칭찬릴레이 4

사소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세밀함

최영란 집사 김혜숙 성도가 네 번째 주인공으로 최영란 집사의 손을 잡았다.

김혜숙 성도가 최영란 집사를 만나고 알게 된 것은 필그림 카페에서 봉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최영란 집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카페 봉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최영란 집사는 커피 만드는 솜씨가 일품인 명품 바리스타이기도 하시지만, 카페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틈틈이 부업도 하신다.

"최영란 집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인상이 차가와 보여 성격도 차갑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최영란 집사님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챙겨주려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청춘대학에서 종이접기 봉사를 하실 때에도 한 번도 귀찮아 하시지 않고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웃에게 베풀 줄을 아는 분이며 마음은 누구보다 더없이 따뜻한 참 대단한 집사님이십니다. 저도 집사님의 그런 마음과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칭주모_칭찬릴레이 주인공들의 모임

우리 공동체를 춤추게 하는 '미녀 고래들'

칭찬릴레이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칭찬 받기 좋아하는 세태에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칭찬할 거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칭찬을 이어가는 릴레이 주자들은 각별히 친분을 쌓은 분들이 아니다. 하지만 칭찬 거리를 찾

아내고 가감없이 칭찬을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이다. 무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평범한 것들이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칭찬거리가 된다. 우리 모두에겐 분명 좋은 성품과 개성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 분들의 칭찬릴레이를 보면서 오해와 무관심이란 시야에 가려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게 된다. 이 분들은 밝고 씩씩함의 매력이 있고, 사소한 것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 늘 웃음으로 매력을 더하고, 꾸밈없는 성격과 순수함이 아름다운 매력이 되고, 차가운 인상 뒤에 더 없이 따뜻한 성품이 있는 네 명의 매력 덩어리들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춤추는 모습을 상상 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 우리 교회의 각 지체와 공동체가 칭찬의 언어와 몸짓으로 가득 차 「대전중부교회라는 고래」를 매일 매일 춤추게 하기를 기원한다.

세상 즐거움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글 · 안중근 집사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1남6녀의 외아들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다가 중학교때부터 운동을 하다 안 좋은 길로 들어가게 되어 술과 담배 그리고 패싸움까지 하며 부모님의 속을 썩여 드렸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여드렸던지 외아들이라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될 저를 어머니께서 직접 병무청에 알아보시고 군대가서 정신차려 오라며 군입대를 시켰습니다. 군대가기 전 술을 먹고 쓰러져 여러번 동사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군대에 가서도 편하게 군생활을 하다 의가사로 일찍 제대를 하였고, 1986년 기아에 입사를 하면서 방탕한 생활은 시작되었고 그런 저를 부모님은 믿는 집안 지금의 아내를 알게 되어 1988년 결혼을 하게 되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저의 술과 노름 운동 여러 가지로 엉망이었고,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 아내에 대한 미안한 생각과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계셨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가정생활도 점점 더 힘들어져 갔지만 주말이면 친구따라 술마시러 다니는게 즐거웠고 술에 취하면 술버릇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갔고 4-5일을 술에 만취해 있었으므로 몸도 마음도 가정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배경

저의 잘못 된 생활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 더 이상 나와는 살수없다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 한 집에 살지만 아내의 마음의 문은 닫혔고, 저도 더 이상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황선량 목사님의 권유로 아버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학교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고 싫었지만 아내의 소원이었고 저 또한 돌파구가 필요하였기에 할 수없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첫 시간부터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위로하여 주셨고 4주의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5주차 세족식을 통하여 아내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때부터 우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의 변화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모든 예배 참석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든 아내를 혼자두고 다녔지만 늘 아내와 함께하면서 잉꼬부부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년부를 섬기며 부장으로 봉사하며 감사함으로 유년부를 섬겼습니다. 예전 저는 술이 만취하여 교회의 지하계단에 앉아 예배당에서 들리던 찬양을 자장가 삼아 위로삼아 자던 때를 기억합니다. 집 보다는 교회의 찬 계단이 안식을 주었던 그 때 찬양은 저에게 위로였던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찬양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이노스로 예루살렘 성가대로 새벽예배 성가대로 세상에서 놀 때의 모습이 어쩌면 교회에서 달란트로 변화되어 레크레이션으로 여러 교회 모임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물질로 힘들던 가정생활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차츰 가정생활도 나아졌고 저를 멀리하고 말 한마디도 않던 두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비전과 신앙고백

앞으로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선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심으로 인해 변화되고 그 변화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주위에서 인정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깨달음으로 회복시켜 주는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힘이 되는 여호와여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태의 복이 임하는 대전중부교회에서 신앙의 큰 태를 품고자 기도합니다

글 · 이진영 사모(이석원 목사)

'전라도와 경상도', 이런 특유의 지역 차이를 넘어 우리 가정은 세워졌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냐고 물으면 그저 "글쎄요?~"하고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저의 남편인 이석원 목사님이 말씀 하시기 때문이다.(그래서 난 항상 웃기만~~^^)

사실 대학교에서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하면서, 서울에서 잠시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이 길을 걷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부족한 나에게 사모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남편을 도와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난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결혼 전 섬겨왔던 봉상교회는 역사가 120년이 넘는다. 이곳에서 나의 믿음의 조상의 뿌리가 세워졌다. 고조할머니께서 선교사님의 전도로 복음을 받고, 전주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에서 태어나, 현재 부계로는 5대째 예수를 믿고, 모계로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가정 안에 남다른 평안함 가운데 신앙을 키웠다.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차이며, 사랑하는 딸 하은이(5살)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그리고 대전중부교회에 와서 곧 자녀를 다시 가져 현재 딸(6개월)을 임신 중이다. 참으로 축복이다. 역시 대전중부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들은 태의 복이 임하는 것 같다~~^^.

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다. 기다림과 설레임, 아버지의 마음, 민감함, 배려, 사랑, 기도, 자녀는 도리어 어미의 귀한 조언자가 되는 듯하다.

대전중부교회를 섬긴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나에게는 서먹서먹한 것이 사실이다. 관계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그만큼 없고 또한 조심스럽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 부족한 면들이 많아서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대전중부교회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셔서 감사하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다.

성도들이 너무 사모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봐주질 않길 바란다. 늘 나의 시각에서도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듯한데, 성도들마저 사모로서만 바라봐주시면 더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그저 가족처럼, 동생과 며느리처럼 껴안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교회연합 목장 셀 리더 세미나 개최

우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4주간 대전 8개 교회 연합의 '목장 셀리더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 가양제일교회, 대일교회, 대전선교교회, 대전중앙침례교회, 새중앙교회, 세비전교회, 예찬바울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각 교회의 목자와 예비목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주일 저녁 6부터 9시까지 특강과 셀모임을 4주간 진행하였다. 특강은 안산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과 침신대학교의 박영철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목자와 아버지 마음',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등의 주제로 진행되었고, 셀모임은 세미나 참가자를 셀별로 나누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목장 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셀리더로서의 역할과 목장 모임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

"우리는 전도를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10월 첫째 주 설교는 마가복음 1:35-3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아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삶'을 말씀하셨고, 바로 내 주변의 이웃, 부모 형제자매, 친구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단계의 실천방향이 제시 되었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명단을 제출했다. 안철호 장로와 최미자 권사의 대표 선서로 새생명 전도축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마음에 강한 다짐을 하였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열리는 새생명 전도축제에는 조상용 담임목사님과 복싱선수에서 테너가수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낸 조용갑 집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주신다. 함께지의 뒷표지에는 태신자에게 함께지를 증정하여 교회를 소개하는 매체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교회 창립 55주년 예배

지난 9월 15일 대예배는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졌다. 이 날 조상용 담임목사님은 '다락방에 모인 초대 교회 120명 성도들처럼 다 같이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자는 설교 말씀을 전하셨다. 이 후 이번에 새로 선출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단상에 올라 온 성도와 다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른 후 생일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할렐루야 성가대의 윤성수 형제와 강지혜 자매가 함께 '주 날 인도하시네'를 특송으로 불러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해외선교부에서는 교회창립 5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산 된장을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제공해 주었다.

권정현 · 한지숙 선교사 파송예배

지난 9월 1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태국으로 파송하는 권정현 · 한지숙 선교사의 파송예배로 드려졌다. 권정현 선교사는 우리 교회 청년부 리더 출신으로 이미 우리 교회의 협력선교사로 태국에서 그동안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다시 세워져 태국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1부 파송예배에는 GMS(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박무용 목사님의 '많이 심고 많이 거둡시다'라는 말씀과 연합찬양대의 찬양 등으로 진행되었고, 2부 파송식은 GMS 본부총무 정홍주 목사님의 사회로 서약과 공포, 파송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정갈렙 선교사 파송에 이어 올해 권정현 · 한지숙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내세운 '선교 비전'의 실천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임직자 선출 공동의회 개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는 '임직자 선출 공동의회'가 지난 9월 8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청지기를 세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 교회가 준비해 온 임직자 선출이었다. 본당을 가득 메운 세례교인들은 보다 합당한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 저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그 결과 안수집사에 김수종, 임채수(이명) 집사가 당선되었고, 시무권사에 류순례 집사, 최말열(이명), 임명숙(이명) 권사가 당선되었다. 비록 목표했던 임직자 수에 많이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앞으로 더욱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소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임직식, 취임식, 은퇴식 개최

지난 9월 8일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안수집사, 시무권사의 임직식과 우리 교회에 15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의 명예권사 취임식, 권사 은퇴식이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일시 12월 1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안수집사 김수종, (이명) 임채수

시무권사 류순례, (이명) 최말렬, 임명숙

명예권사 강기순, 고한례, 김경심, 김미자a, 김석순, 김순덕, 김용한, 김재식, 김정순a, 남궁예순, 남분자, 민공순, 박병란, 박옥자, 박은선, 서숙자, 오보근, 오향순, 유화자, 윤순영, 이숙자a, 이안심, 이유자, 임광빈, 정순애a, 최화단, 편무화

은퇴권사 최미자, 순정숙, 박순규, 정영자, 이명선

스마일 천사 효재의 그림이야기

효재는(6살. 유치부 큰숲어린이집) 아빠 정안묵(비래3) 엄마 이경선(비래3목장)성도의 큰아들이다. 동생 효진(3살. 유아부)과 함께 주일이면 손을 꼭 잡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너무 좋아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만들기며, 그림 그리기를 잘 하는 효재는 큰숲어린이집에서 그림 잘 그리고 솜씨 좋은 아이로 전국미술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타기도 했다. 이름만 불러도 환하게 웃어주는 효재는 스마일 천사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엄마 이경선 성도는 4년 전 대전으로 이사를 오면서 스스로 등록하여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보니 교회에 참여하는 일이 적어 섬김에 있어서 더 절실하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스마일 천사 효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다듬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심을 느꼈다.

스마일 천사 효재, 언제나 스마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초청장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새로운 영혼으로 삶을 살아가기
이 낯선 외침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수록 힘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생명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영혼의 바른 목적지를 알 수 있다면 달라 질까요?
이제 당신의 두 손으로 잡아 주십시오.
예수님께만 참된 삶과 바른 영혼이 있습니다.

늦은 가을 밤
11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대전중부교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권투선수에서 테너 가수로 삶을 변화시킨 조용갑 집사님과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모시고 싶었던 _____님의
소중한 두 손에 _____올립니다.

대전중부교회 042-622-9991 www.jungbu.or.kr

※ 본지를 읽고 가져가셔도 됩니다.